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0년 2월 7일(금)
..(음력 1월 14일)..

Пятница
7 февраля 2020г.
№ 5(116872)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승무원들과 함께 (오른쪽: 유즈노사할린스크공항에 첫 한국 비행기 착륙을 취재하는 본사 김장녀 문화부 부장).

잊을 수 없는 우리 역사

30년 전에 사할린으로 첫 한국 전세기 도착

30년 전, 1990년 2월 8일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 존재 이래 처음 외국 항공기가 날아왔다. 한국의 <보잉 727> 칼 항공기였다. 그날 공항은 수백 명의 사람들로 흥성거렸다. 이산가족을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떠나려 하는 제3차 모국방문단(120명), 그들을 배웅하는 친척들, 그리고 한국 비행기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전세기가 도착하자 비행기에서 내리는 한국 정부의 관계자, 대한적십자사 대표 및 외교관, 언론 및 방송 기자, 승무원들, 이들에게 '축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큰 소리와 박수로 마중했던 사할린의 동포들. <레닌의 길로>지(현 새고려신문)의 김장녀 기자는 '명절 같다'고 말했다.

이날 취재차 공항에 나간 본사 이예식 사진기자는 카메라에 많은 명장면을 담았다. 이 사진들은 러시아, 한국 등 전 세계에도 알려져 있다. 이번에 1면에 올린 사진은 언론에 한번도 게재되지 않은 사진이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사할린, 세계 장애인 알파인 스키 월드컵 열린다

2월 9일부터 21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고르니 워스두흐'스키장에서 <2020사할린 세계 장애인 알파인 스키 월드컵 >경기가 열린다. 이 대회에 러시아, 미국, 노르웨이, 프랑스, 오스트리아, 폴란드, 이탈리아, 스위스, 핀란드, 슬로바키아 세계 총 10개국의 선수 4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선수는 주로 시각장애자를 비롯한 근골격계의 장애인이다. 참가 선수들은 여러 해 패럴림픽 경기에서 우승한 선수들이다. 경기 종목으로는 회전, 대회전, 수퍼대회전, 평행대회전, 활강 등에서 경기를 치르게 된다. 이번 대회를 위해 심판80명, 10개 방면에서 경기를 도울 자원봉사자100명이 참가한다.

이번 주초에 사할린주 정부 회의에서 세계 장애인 알파인 스키 월드컵 진행에 관련한 문제를 논의했다.

"우리는 대규모 스포츠 대회를 치른 경험이 있다. 그러나 세계 장애인 알파인 스키 월드컵은 사할린에서 처음 개최한다. 트랙 준비와 편리한 숙박시설을 비롯해 시작해 맛있는 식사와 멋진 콘서트 준비까지 모든 것이 최고 수준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안전과 의료 지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강조했다.

경기의 스키장의 주요 트랙으로는 <스포츠탑나야(스포츠적)>와 <스포츠탑너 루카브(스포츠적 즐기기)>, 예비트랙 <아르메이카>가 준비되었다. 세계장애인위원회 전문가들은 사할린 지역의 대회 준비를 높이 평가했다고 전해졌다.

경기 참가자들을 위해 버스 20대가 준비되었고 <고르니 워스두흐>스키장에는 이동 의료센터가 설치되고 구급차가 현장에 상시 대기하며 대회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 50명과 보안업체의 직원들, 구조대원들이 경기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는다.

2월 3일에는 패럴림픽 경기 첫 참가자들이 사할린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5일(수) 일부 선수들은 사할린에서 첫 훈련을 실시하고 경기 트랙이 잘 준비돼 있다며 평일 낮 기온도 영하10도 이하로 떨어져 다만 춥다는 말을 전했다.

장애인 알파인 스키 월드컵 개막식은 2월 9일 오후 6시에 <고르니 워스두흐>스키장의 동쪽 입구에서 개막하고 우승자 시상식도 매일 이곳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본사 기자)

알레리 리마렌코, 태국을 사할린 대규모 투자사업 참여에 초대

사할린 주지사는 해외 사업 대표단과 실무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주러시아 연방 태국 대사관 전권대사 타나팁 우파티싱, EAG홀딩스의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사국들은 사할린의 교통 제반시설 개선, 대형 물류단지 건설, 산업 조성, 관광 개발 등을 내용으로 논의했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에 액화가스 수송 통로 건설에 대한 전망을 논의했다. 액화천연가스를 야말에서 아시아 국가들로 연료를 수송하는 데 필요한 수송지로서, 또한 쇄빙선으로 공급하는 액화천연가스 수송에 더욱 경제적인 수송선이 필요하다고 수송 터미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할 만한 지역이 사할린이라고 지목했다.

태국 사업가들은 대규모 산업 기획에 관심을 보이며 사할린의 천연액화가스를 구입하고자 했고 사할린은 이 제품을 해외 협력국에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업 실행에 투자를 요청하며 우선적으로 기획을 시행

하기 전까지 태국 측에 일정 연료 공급량 설정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주지사는 앞으로 전망이 높은 사할린의 <고르니 워스두흐>리조트단지 개발과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의 시설 개발에 투자 참가를 권하고, 사할린 측에서 기획의 실현을 위한 최적의 조건들을 산업인들에게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태국 사업 대표단의 공식 방문에 중요한 의미를 두었다. 태국 측 왕권 수석대표인 파이로즈 피엠평산트는 푸켓 개발 관련 경험을 예로 들어 설명하며 사할린의 관광 및 제반시설 개발 기획을 시행함으로써 실질적 수익도 얻고자 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양국은 현재 상호 물류 개발을 확대하는 데 공감하며 현재 사할린에서는 태평양 아시아 국가들에 수산물과 갈탄이 공급되고 있고 태국으로부터는 플라스틱과 고무, 금속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제품들이 공급되고 있다. 2019년 11개월간 양국 교역액은 2018년에 비해 1.1배 증가한 미화 3860만 달러에 달한다.

단신

사할린주, 1월 한 달간 생선 및 해산물 6만6천 톤 어획

사할린주 수산업체들이 1월에 다양한 수산물 66,223,625톤을 어획했다. 그중 명태는 40,328톤, 태평양 청어는 7,818톤, 대구는 5,961톤, 나와가는 5,295톤, 임연수어는 1,504 톤이고 나머지는 해양 생물 채취량으로 1월의 약천후로 인해 채취량은 만족하지 못한 3,817,115톤에 달했다고 러시아 연방 수산청의 사할린 및 쿠릴지역 관리국이 전했다.

<아브로라>항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로 인해 중국으로 운항 중단

<아에로플로트> 항공사 산하 <아브로라>항공이 2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행 운항을 임시 중단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러시아 정부는 임시 국경 차단을 결정했다.

<아브로라> 항공사는 상황이 변경되기까지 하바롭스크 - 하얼빈, 블라디보스토크 - 베이징(왕복) 노선 취항을 임시 중단했다. 3월 28일 이전까지 출국하는 승객들은 날짜 변경이나 취소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 위압금 없이 변경하거나 환불이 가능하다.

새고려신문

2020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0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95루블리 15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텍스는 ПР575입니다. (본사 편집부)

교육원은 한국어 교육을 발전시키는 사업이 우선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과의 인터뷰



올해 2월 말에 사할린 한국교육원의 김주환 제 8대 교육원장 3년 임기가 끝난다. 본사 배순신 기자와 김기윤 견습기자가 김주환 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 3년이 빨리도 지나갔네요. 사할린한국교육원 원장님께서 진행하시는 사업을 잘 이루셨습니까?

- 교육원에서 하는 일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우선 한국어 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원과 사할린 국립대학 한국어과에서 한국어 교육을 열심히 가르치고 한국어 채택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죠. 현재 사할린에 한국어 채택 학교들이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동양김나지아, 제2김나지아, 제2리제이, 코르사코브의 제2중학교와 제4중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택 학교들은 직접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에트노스>아동 예술 학교 경우엔 한국어 채택 학교 예산으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예산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남도국립국악원(진도)에

연수와 한국어 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원 선생님들이 <에트노스>를 찾아가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학생들과 수업이 있고 이들을 문 베로니카 선생님이 가르치시고 화요일, 목요일 평일에는 설원화 선생님이 <에트노스>학교 교사들과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주요 사업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후원을 해서 모두 잘 된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점은 학생들이나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들에게 한국어 연수 기회에 많이 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작년 여름에 처음으로 한국교육원이 경희대학교와 함께 경희대에서 한국어 및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사할린 학생들을 위주로 연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도 이와 같은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번 2월 10일부터 교육원에서 한국어 수업을 실시하는데 입문반을 제외하고 초급반부터 중급반까지 7개 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원에서

수강생 중에 5월에 수료를 할 때 우수한 학생들을 각 반에서 두 명씩 추천을 받아서 한국에서 언어, 문화 연수를 보낼 계획입니다. 교육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매년 정기적으로 학생들을 보내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공료의 경우 각자 부담하고, 한국 내 프로그램 진행은 교육원에서 후원을 합니다.

- 보통 교육원 수강에는 많이 신청하나요?

- 보통 매 학기당 230명 전후가 수강을 신청합니다. 지금 2월 10일 개강인데, 오늘까지(개강 1주일 앞두고) 200여명이 등록했는데 개강할 때는 230명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어 교실은 순수하게 입문, 초급, 중급으로 나누어 가르칩니다.

저희 사업에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업으로 한층이 있고 다른 한 층은 평생교육으로 요리교실, 주부교실을 진행됩니다. 그리고 요리뿐 아니라 가르치실 만한 분이 계시면, 서예 등의 붓글씨나 종이 접기 등도 평생교육 교실로 운영합니다.

교육원에서 지방 한글

학교를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예, 사할린에는 한글 학교 11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교육원, 한국어 채택 학교 등은 한국 교육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한글학교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부에서 재외동포 재단을 통해 지원 하는 학교입니다. 한글학교는 주로 지방 한인회들이 설립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방한인회장들이 한글학교 교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육원에서는 한국어 교수법을 알리고 기자재 등을 제공합니다. 현재 한글학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세종한글학교, 우글레고르스크 한글학교, 크라스노고로스크 한글학교, 돌린스크 한글학교, 홀스크 한글학교, 코르사코브한인회의 한글학교, 아나와 한글학교, 유즈노사할린스크한인문화센터 소속 한글학교입니다. 그리고 2곳의 태권도 학교도 한글학교로 인정되었습니다. 하나는 <오스트로브>무술센터(관장 안수학)와 코르사코브 태권도 학교(관장 이춘식)입니다. 이 학교에서 태

권도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 정도 우선 한국어 교육을 합니다.

한글학교에 대한 저 나름대로 걱정은 사실, 한국어를 가르치시는 젊은 선생님들이 적고 지방의 경우엔 연세가 많이 드신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는데 문제는 후계자가 없다는 점입니다. 사실 한글학교 선생님들은 거의 봉사차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재외동포재단에서는 드리는 강사료도 얼마 안돼 그것으로 충분히 생활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지방 한글학교에서 연세 드신 선생들을 이어 갈 후계자가 없으면 결국 한글학교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돼요. 지금 여러 지방에서 한국어 교육을 원하는 학생은 있는데 선생님이 없어서 한국어 교육을 못 합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선생님들도 지방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정말 걱정됩니다.

- 정말 오래전부터의 고민거리입니다. 원장님 임기동안 새롭게 시작한 사업을 이야기하시지요?

- 제가 새로했다기 보

다는, 대한민국에서 사할린에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제가 도와준 사업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예비교원 파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2017년부터 계속했습니다. 2017년에는 인하대학교가 수행을 했고, 2018년 2019년에는 경희대학교에서 사업을 맡아서 했습니다. 올해에도 국립국어원에서 사할린 예비교원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사할린에서의 사업을 가장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한국어 예비교사 국외 실습 사업은 일본을 비롯해 CIS지역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이런 곳에서도 하고 있는데, 국립국어원에서는 바로 우리 사할린의 사업이 가장 내용면에서 실천적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7면에 계속)

이모저모

"사할린의 얼음" 축제 2월 22일 개최

2월 22일 돌린스크 구역의 나이바강 하구에서 겨울의 빛나는 전통 행사 중 하나인 '사할린 얼음' 겨울 아마추어 낚시 축제가 개최된다. 사할린주 '나와가' 얼음낚시 개최는 2012년부터 매해 '국민 낚시' 전 러시아 축제의 일환으로 사할린주 정부와 주 수산청이 주최하고 있다. 행사 개최는 사할린주 수산업체 연맹 및 연합회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할린 얼음' 축제는 오래전부터 이미 특별한 지역 행사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열기가 뜨거운 이 행사에 다른 극동지역의 대표들을 비롯해 모스크바, 모스크바 지역, 상트페테르부르크, 하카시아, 크림 지역에서도 참가하고 있다. 모든 참가 희망자들은 낚시의 행운을 체험해 볼 수 있으며, 매해 경기에는 어린 낚시 애호가들의 참가도 접수하고 있다. 특별 부문에서 발달장애인들도 경쟁을 하고 경기는 팀별 낚시와 낚시 바이애슬론 두 단계로 진행된다.

가장 많은 물고기를 낚은 사람에게 상금이 주어지는데 총상금은 50만 루블리로 수상 부문은 12개, 특별 부문 7개가 있다.

행사 규칙 및 팀 등록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 <http://sakhice.ru>에서 확인할 수 있다.

"Сахалинский лёд" пройдет 22 февраля

22 февраля в устье реки Найбы в Долинском районе состоится одно из ярких событий зимы — традиционный фестиваль зимней любительской рыбалки "Сахалинский лёд".

Открытые состяз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подледному лову наваги проводятся ежегодно с 2012 года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Народная рыбалка", организовываются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областным агентством по рыболовству. Активное содействие в организации мероприятия оказывают ассоциации и союзы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ий лёд" давно уже перестал быть сугубо региональным мероприятием. В празднике азарта участвую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ругих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а также Москвы и Подмосквья,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Хакасии, Крыма.

Испытать рыбацкую удачу сможет каждый желающий — ежегодно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любительские детские команды.

В отдельной номинации соревнуются и люди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йдут в два этапа: командный зачёт и рыбацкий биатлон.

Рыболовы, выловившие больше всего рыбы, получат денежные призы. Призовой фонд составляет 500 000 рублей, 12 призовых мест, 7 экстр-номинаций.

Информация о регламенте мероприятия и регистрация команд на [сайте](#).

'사회적 단련' 크로스컨트리 스키 무료 강습 유즈노 사할린스크 주민들에게 제공

'사회적 단련(소셜 피트니스)' 기획 관리자가 모든 희망자를 위한 크로스컨트리 스키 동계 강습 시작에 대한 소식을 알렸다. 휴일에 스키 강습에 합류 시 훈련과 장비 대여는 무료이며 개인 장비도 환영한다. 강습은 숙련된 트레이너가 진행한다.

기획 담당자인 크세니야 오가르코와는 이미 강습 시간표가 작성된 가운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9시 30분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크로스컨트리 스키 강습은 1시간 동안 진행되며 그룹들은 동계 스포츠 종목 학교 구역의 장비 대여소 옆에서 집합한다. 강사는 시민들에게 스키로 걷기와 정통 스키 기술의 기본을 가르치고, 스키 타는 법을 익히도록 돕는다. 참가 희망자들에게 장비를 착용하기 위해 강습 30분 전에 도착하길 권한다.

"기획의 일환으로 피트니스, 요가, 스트레칭, 힙합댄스, 벨리댄스, 포트 드 브라(발레의 팔동작) 등, 다양한 동작 종목의 강습도 진행한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 이 모든 강습은 도시의 각 행사장과 지정된 지역에서 진행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은 마음에 드는 수업을 찾아 이를 통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크세니야 오가르코와는 강조했다.

무료 크로스컨트리 스키 강습에 대한 세부 정보는 전화번호 8-962-419-94-19 로 세르게이 브류린 강사에게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다른 강습 행사장에 대해서는 전화 8-914-094-07-01로 이리나 정 강사에게 문의 바람.

'사회적 단련(소셜 피트니스)' 기획은 올림픽 대비 동계스포츠 종목 학교의 지원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지역 보디빌딩 사회단체와 유즈노사할린스크 행정부 관광 및 스포츠 청년활동부서가 총지휘를 하고 있다.

«Социальный фитнес» зовёт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на бесплатные уроки по беговым лыжам

Кураторы проекта «Социальный фитнес» объявили о начале зимнего сезона занятий на беговых лыжах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урокам можно в выходные дни — тренировки, как и прокат инвентаря, будут бесплатными, хотя приветствуется наличие собственного снаряжения. Заниматься с участниками будут опытные тренеры.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оекта Ксения Огаркова рассказала, что расписание уроков уже сформировано. Жител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будут ждать в субботу и воскресенье к 09:30. Продолжительность занятия составит один час. Группы будут собираться возле прокат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ШОР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улица Венская, 5). Тренер научит горожан базовым навыкам техники классического лыжного и конькового хода, а также поможет освоить практическую езду. Желающим рекомендуют приходить за полчаса до начала занятий, чтобы успеть надеть снаряжени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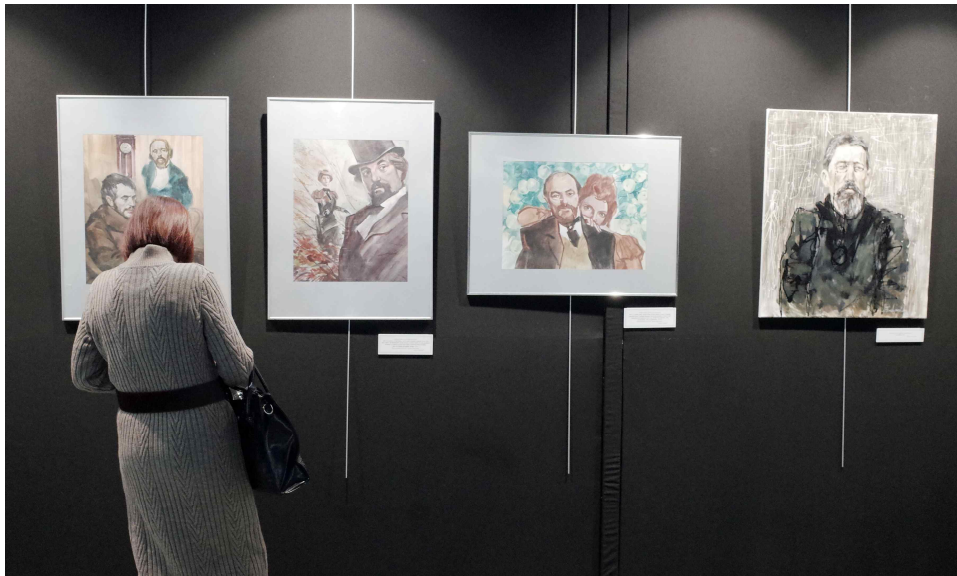
— Хотелось бы напомнить, что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действуют различные виды активности: фитнес, йога, стретчинг, хип-хоп-танцы, belly dance, port de bras — и все это в разных точках города и планировочных районах. Занятия проводятся опытными и обученными тренерами. Каждый южносахалинец сможет найти себе занятие по душе и улучшить здоровье, — отметила Ксения Огаркова.

Уточнить все подробности о бесплатных занятиях на беговых лыжах можно у тренера по телефону 8-962-419-94-19 (Сергей Втюрин). Сведения об уроках на остальных площадках доступны по телефону 8-914-094-07-01 (Ирина Ден).

Проект «Социальный фитнес» существует благодаря поддержке школы олимпийского резерва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Инициативу курируют департамент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спорту и туризму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 также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бодибилдинга.

(8면에 계속)

<사할린, 체호브에 대하여>미술 전시회 열려



지난 1월 30일(목) 안톤 체호브의 탄생 160주년과 체호브의 사할린 방문 130주년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 주 미술박물관에서 제3회 <사할린, 체호브에 대하여>미술경연 작품 전시회가 열렸다.

이번 미술 경연에는 조성용, 유리 메텔스키, 나탈리아 키류히나 등 사할린 화가 외에도 상트페테르부르크, 콤소몰스크-나-아무레의 화가들이 참가했다. 체호브에 대한 경연은 5년에 한 번 개최되고 있다. 출품작은 총 60여 점이 전시되었는데 경연 심사 결과는 2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주최 측이 밝혔다.

체호브 정통 회화, 조각작품, 체호브 작품의 주인공과 장면 등이 담긴 여러 회화적 기술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전시회 개막에는 문화부 관계자, 화가, 미술 애호가, 언론인 외에도 <체호브 낭독회>학술회 참가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전시장을 찾았다. 전시회 관람은 3월 2일까지 계속된다.

(취재: 이에식 사진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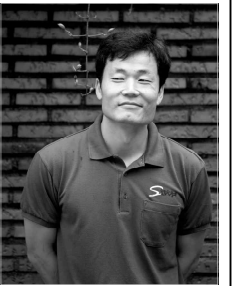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모두가 일등!

지리산 아래에서 몇 달 지낸 적이 있다. 읍내 곳곳이 익숙해질 무렵 신문에 섞여 전단지 한 장이 날아왔다. 삼진강 자전거 대회.

자전거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백 명에게 돌아가는 경품이 푸짐해서 침이 꿀꺽 넘어갔다. 선풍기에 전기밥솥, 일등은 네 발 오토바이 한 대.



읍내 자전거 타는 사람을 다 모아야 백 명이 될까 싶었고 자전거를 오래 탄 내가 그 중에 설마 입상권이 되지 못할까 라는 건방진 생각도 하게 되었다.

대회 날이 되어 헬멧에 고글, 몸에 달라붙는 자전거 복장을 갖추고 나가보니 웬 걸, 나 혼자 울긋불긋 요란했고 바구니 실은 아주머니, 삼 쫓은 아저씨, 분홍색 아가씨 자전거까지 마을 자전거들이 모두 모여 들었다.

"일등을 뽑지 않으니까 천천히 재미있게 다녀오세요." 출발신호가 떨어지자 모두들 웃고 떠들며 삼진강변을 달렸다. 일등을 뽑지 않으니 줄은 끝 모르게 길어졌지만 한 대 한 대 끝인지점에 들어올 때마다 환영하는 노인회 사물놀이패의 북장구 소리는 지치지 않고 흥겨웠다.

처음만 당황했을 뿐 곧 삼진강 자전거 대회를 즐기게 되었다. 일등을 뽑지 않는 대회, 모두 다 웃으며 강바람을 맞는 대회인 것이다. 흥분한 초등학교이 마구 달리다가 쥐가 나는 바람에 구급차에서 치료를 받은 게 전부, 다치는 사람 없이 즐겁게 자전거 대회가 끝났다.

세발 자전거를 타고 온 아주머니가 경품 네 발 오토바이를 탔다. 나머지 경품들도 모두 주인을 찾아갔지만 나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근처 중학생들이 수십 명 몰려와 경쟁률이 높아져서였다.

대회를 마친 자전거들이 곳곳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로 흩어지는 모습은 눈이 따뜻해질 만큼 정다웠다. 내년에 함께 달릴 수 있기를 나도 모르게 소원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모습은 팔순의 흰 수염 할아버지가 타고 달린 삼십 년 된 자전거다. 나도 그렇게 자전거를 타며 나이 들고 싶다.

광주에서 김남중

[세상만사] 사할린 징용 문제와 정부의 부작위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늘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결정 한 가지를 보고 생각이 달라졌다. 한 달여 전인 지난달 27일 헌재는 일본강점기 사할린으로 징용된 한인과 그 가족이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이날은 헌재가 '위안부 합의'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는 헌법소원도 각하한 날이었다. 같은 날 국회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사할린 피해자의 헌법소원 각하'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뉴스였다.

사할린에서 살다가 영주 귀국한 한인 가운데 2296명은 2012년 1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강제 동원 당시 받지 못한 임금의 청구권과 관련 한국 정부가 '부작위(不作爲)' 상태에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일을 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것을 하지 않아 다른 일을 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부작위다. 헌재는 정부가 부작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2013년 6월부터 2016년 1월 사이 외교부가 몇 차례 당국 간 협의를 개최할 것을 일본에 요청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부작위를 전제로 정부 행위가 위헌임을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취지인데, 나는 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일본에 몇 차례 "협약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면죄부를 받기에는 문재인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가 사할린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 한 일이 많지 않다. 해당 헌법소원 청구의 핵심은 '분쟁이 있을 경우 제3국에 중재를 맡길 수 있다'는 한·일 청구권 협정 조항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중재를 어디에도 요청한 적이 없다. 무료로 사건을 맡은 경수근 변호사에게 결정에 관한 평가를 물었더니 "결론을 미리 내놓고 한·일 관계 변화에 눈치를 보다 날을 잡는 것 같은 의심이 든다"는 답이 돌아왔다.

헌재 결정문 가운데 보충의견은 더 황당하다. 이 중석 재판관은 "정부가 해결절차를 진행한 결과 오히려 청구인(사할린 출신 한인)과 국가에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면 그때도 외교적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행정부에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고 강제한들 선연적인 의미 이상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헌법소원 사유가 위헌인지 아닌지만을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에 따른 결과를 예단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 헌재 결정은 그 자체가 선연적 수준을 넘어 상당한 무게를 지니는 것인데 왜 그 의미를 작게 보는지 모르겠다. 헌재 결정이 실망스러운 또 다른 이유는 결정이 너무 늦어서다. 이번 결정은 심판이 청구된 지 7년1개월 만에 나왔다.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은 모두 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한 고령자다. 이때를 기준으로 귀국이 허용됐기 때문이다. 권경석 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회장에 따르면 100여명이 그 사이 세상을 떠났다. 법리적으로 복잡해 보이지 않는 결론을 내릴 것이었다면 진작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

한·일관계사를 전공한 이연식 박사는 한·러·일의 사할린 외교 협상을 다룬 책 '책임과 변명의 인질극(방일권·오일환 공저)'에서 10여년 전 일본 외무성을 방문했을 때 그곳 실무자들이 자료와 근거를 요구해와 당혹감과 굴욕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일본이 이미 자료를 방대하게 쌓아놓고 있으면서 굳이 한국의 학자에게 자료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러시아가 사할린 한인에 관한 기록을 공개한 1990년대 초중반 이후 10여년간 엄청난 연구 인력과 물량을 쏟아부어 자료를 조사하고 이관해 왔다고 한다.

만약 헌재 결정문에 적힌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일본이 응해 양국 외교 실무자가 협의 테이블에 앉았더라도 대화는 망신만 당하고 끝났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05년에서야 현지 실태조사를 시작할 정도로 너무 늦게 움직였다.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 진정으로 부작위 상태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피해자의 목소리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권기석 온라인뉴스부 차장 (출처: 국민일보)

아산 신창면 사할린영구이주민, 사랑의 장학금 기탁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에 거주하고 있는 사할린영구이주민(회장 백기부)들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소정의 이웃성금을 모아 신창면 행복키움추진단(단장 서광석)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을 기탁한 사할린영구이주민들은 본인들도 정부의 지원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적은 금액이지만 장학금으로 전달하고 싶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전달하게 되었으며 이 성금은 저소득가정 학생 2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신창면 사할린영구이주민들이 사랑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백기부 회장은 "사할린에서 이주해와서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으며, 넉넉한 생활은 아니지만 조금씩 성금을 모아 어려운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도 있고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서광석 행복키움추진단장은 "신창면 지역의 행복키움사업에 동참하여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어려운 가정을 위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일보)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Наступил сезон Ипчхун 입춘[立春]

По мнению корейских ученых, уже в период Трех государств существовал сезонный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й календарь, согласно которому год делился не только на четыре времени года, но и на 24 сезона (исбса чолги). В основе выделения такого количества сезонов лежало наблюдение за положением Солнца на эклиптике. Сезонный календарь, тесно связанный с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корейских крестьян, оказал огромное влияние и на систему и характер календарной обрядности. Вот наименования этих сезонов, которые до наших дней сохранили свое значение в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Сезон	Корейское название	Перевод	Время по григорианскому календарю
1	Ипчхун	Начало всены	4 февраля
2	Усу	Дождевая вода	19 февраля
3	Кёнчхип	Пробуждение насекомых	5 марта
4	Чхунбун	Весеннее равноденствие	20 марта
5	Чхонъмёнъ	Ясно и светло	4 апреля
6	Когу	Дожди для злаков	19 апреля
7	Ипха	Начало лета	5 мая
8	Соман	Малое изобилие	20 мая
9	Манъджонъ	Колошение хлебов	5 июня
10	Хаджи	Летнее солнцестояние	21 июня
11	Сосо	Малая жара	7 июля
12	Тэсо	Большая жара	22 июля
13	Ипчху	Начало осени	7 августа
14	Чхосо	Прекращение жары	23 августа
15	Пэньно	Белые росы	7 сентября
16	Чхубун	Осеннее равноденствие	22 сентября
17	Ханно	Холодные росы	8 октября
18	Санъганъ	Выпадение инея	23 октября
19	Иптонъ	Начало зимы	7 ноября
20	Сосол	Малые снега	22 ноября
21	Тэсол	Большие снега	7 декабря
22	Тонъджи	Зимнее солнцестояние	21 декабря
23	Сохан	Малые холода	6 января
24	Тэхан	Большие холода	20 января

Источник: Сайт Коре сарам. Записки о корейцах. (Календарные обычаи и обряды народов Восточной Азии. Годовой цикл. Корейцы)

Новый посол КНДР в России прибыл в Москву

Новый посол КНДР в России Син Хон Чхоль 5 февраля прибыл в Москву.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ТАСС в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м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е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 российской столице.

Его предшественник Ким Хен Чжун вернулся домой в мае 2019 года. На родине он возглавил международный отдел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Син Хон Чхоль является карьерным дипломатом. «Интерфакс» отмечает, что он служил в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Занимал различные должности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МИДе. Работал на посту посла КНДР в Бангладеш, возглавлял консульский отдел МИД своей страны. С 2014 года занимал должность заместителя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Владеет французским и кхмерским языками.

Дипломат посетил Россию с официальным визитом в октябре 2018 года. Тогда Син Хон Чхоль в аэропорту Пхеньяна провожал посла России в КНДР Александр Мацегора.

30 октября 2018 года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В.Моргулов провел консультации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Син Хон Чхолем. Стороны обсудили состоя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 развития двусторонних отношений, включа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практических областях. Состоялся также обмен мнениями по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Син Хон Чхоль с послом РФ в КНДР Александром Мацегорой.

Ранее в феврале 2018 года на приеме по случаю Дн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го работника в посольстве РФ в Пхеньяне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НДР Син Хон Чхоль заявил о решимости Пхеньяна продолжить развивать двусторонн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Москвой, несмотря на существующие препятствия, сообщил ТАСС. Твердая позиция КНДР заключается в стремлении продолжить развитие традиционно друже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мыслом лидеров стран.

Он также отметил, что общие усилия двух государств направлены на достижение «реальных результатов путем активизации контактов и обменов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ИА РУСКОР)

Сахалинские коммунисты пожелали коллегам из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всего самого хорошего

4 феврал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консульства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городской партий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ПРФ и Ленинского комсомола (ЛКСМ РФ). Первым с докладом выступил первый секретарь областного комитета ЛКСМ РФ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ван Тришин.

Он отметил заслуги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социализма и пожелал всему корейскому народу новых побед в построении сильного независим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Затем присутствующие заслушали речь консула КНДР Пак Ен Хуна, который отразил стремление его народа к дружбе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между наш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и проинформировал о курсе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социализма. В дальнейшем был показан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фильм про современный город — столицу Пхеньяна.



Присутствующие поблагодарили гостей и выразили им искренню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желая корейским товарищам новых побед в строительстве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самостоятельного, независим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КПРФ.

Фильм «Минари» получил награду фестиваля независимого кино Sundance-2020

Фильм «Минари» (Minari) режиссёра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Ли Айзека Чуна удостоился награды американ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независимого кино Sundance-2020, который завершился 2 февраля в Парк-Сити штата Юта. В конкурсе американских работ картина «Минари» получила главный приз большого жюри и зрительских симпатий. Данный фестиваль занимается открытием, развитием и поддержкой независимых кино- и театральных художников со всего мира в самых разных

жанрах. Фильм «Минари» рассказывает о семье корейских эмигрантов, глава которой в середине 80-х годов решил отправиться в Арканзас и основать ферму. Главные роли в картине сыграл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актрисы Юн Ё Чжон, Хан Е Ри, а также ряд американских актёров. Всего вручены 28 призов за полнометражное кино. На фестиваль было отобрано 74 короткометражных фильма, а всего представлено 15.100 картин.

KBS World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Полигранд"

реклама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72-34-60, 72-22-03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С 4 февраля иностранцам, побывавшим в провинции Хубэй КНР, запрещён въезд в РК

Иностранцам гражданам, побывавшим в течение последних двух недель в китайской провинции Хубэй, начиная с 4 февраля запрещён въезд в РК. Данная мера направлена на то, чтобы остановить дальнейше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нового типа коронавируса. Об этом заявил в воскресенье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Чон Сэ Гюн. Вспышка коронавируса произошла в декабре в городе Ухань провинции Хубэй, и к настоящему моменту он распространился во многих странах мира. Аналогичный запрет ввели и другие страны, в том числе, США и Япония.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 РК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15 случаев заражения вирусом.

В Пусане прошёл форум молодёжи РК и стран АСЕАН - Frontier Forum

С 31 января по 6 февраля в Пусане прошёл форум молодёжи РК и стран АСЕАН - Frontier Forum. В нё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90 студентов, которые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тран региона, ценностей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цветания, мира и человека. По итогам мероприятия было принято совместное заявление. Участники форума уделили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тем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К с АСЕАН и странами Меконга, новой южной политике Сеула,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ой.

РК продолжает развивать инновацион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родолжает работу по развитию инновацио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31 января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малого, среднего и венчурного бизнеса представили план поддержки данного направления на 2020 год.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н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намерено выделить на реализацию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задач 492,5 млрд вон или 414,5 млн долларов. Это в 1,4 раза больше, че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Усил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правлены на выполнение 11 задач. Среди них создание «умных» заводов, повышение их уровня, создание структуры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данных, развитие технологий, разработка проектов «умных» сенсоров и другие. Основная часть средств будет направлена на поддержку в создании 5.600 «умных» заводов. Отныне такую помощь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малые и средние, а также венчурные компании, которы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стремятся создать «умные» заводы. В число объектов поддержки вошли проекты, в которых круп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оказывают помощь более мелким компаниям в налаживании умной системы производства.

Группа BTS установила рекорд в рейтинге The Social 50

Южнокорейская группа BTS установила рекорд по самому длительному сохранению лидерства в рейтинге The Social 50. Он определяе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ого, насколько часто артистов упоминают фанаты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3 февраля на сайте Billboard сообщается, что BTS 164 недели подряд является лидером рейтинга. Предыдущий рекорд принадлежит Джастину Биберу, который удерживал первое место в течение 163-х недель, начиная с марта 2011 года. По данным музыкальной аналитической компании Next Big Sound, на основе данных которой составляется The Social 50, в последний отчётный период показатели BTS выросли практически по всем категориям.

Фильм «Паразиты» получил премию Американской гильдии сценаристов

Фильм «Паразиты» удостоен очередной награды. Режиссёр Пон Чжун Хо и сценарист картины Хан Чжин Вон получили премию Американской гильдии сценаристов (Writers Guild Awards, WGA) в категории «Лучший оригинальный сценарий». Церемония вручения наград прошла в Лос-Анджелесе и Нью-Йорке. Награду в этой категории оспаривали также фильмы «Достать ножи» Райана Джонсона, «1917» Сэма Мендеса, «Образование» Оливии Уайлд, «Брачная история» Ноа Баумбака. Премия Американской гильдии сценаристов вручается в 26 номинациях, охватывающих кино, телевидение, радио и анимационную графику.

Песня Сая «Каннамский стиль» продолжает бить рекорды популярности

Песня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евца Сая (PSY) «Каннамский стиль» установила новый рекорд по числу просмотров на видеохостинге YouTube. Клип, загруженный в июле 2012 года, набрал более 3 млрд 520 млн. просмотров, заняв по этому показателю пятое место. Это больше, чем набрал любой другой музыкальный клип К-поп. Клип «Каннамский стиль» за первые 2,5 месяца просмотрели 105 млн. раз, а уже в начале октября 2012 года он вошёл в десятку самых просматриваемых роликов на YouTube. (РКИ)

КНДР прекратила транспортное сообщение с внешним миром из-за коронавируса

Власти КНДР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о де-факто полной изоляции страны, прекратив регулярное пассажирское сообщение с Китаем и Россией. Высока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такое же решение принято по поводу отправки грузов в другие страны, включая КНР и РФ, а также ввоза товаров из-за рубеж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официальный Пхеньян намерен защититься от возможног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вспышка которого зафиксирована в Китае.

Как сообщили российские и китайские источники, ссылаясь н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уведомление со стороны властей КНДР, с 3 февраля полностью прекращено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е сообщение между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и Китаем, а также КНДР и Россией. Между РФ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е сообщение осуществлялось до сих пор по маршрутам Уссурийск - Туманган, Москва - Туманган, Москва - Пхеньян и Хабаровск - Пхеньян. Часть составов пересекала границу в районе Хасан (РФ) - Туманган (КНДР), а часть следовала через китайскую территорию, заходя затем в Северную Корею через переход Дандун (КНР) - Синьдзун (КНДР). Также полностью приостановлено сообщение между Китаем и КНДР по всем маршрутам.

Учитывая, что КНДР имеет сухопутную границу только с РФ, КНР и Южной Кореей, при том, что граница с южанами полностью была перекрыта из-за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Пхеньяна и Сеула, то Россия и Китай были до сих пор единственными двумя реально возможными направлениями для движения поездов. Таким образом теперь КНДР оказалась полностью в добровольной изоляции.

вольной изоляции.

Точно такая же судьба постигла авиамаршруты, которые связывали КНДР с зарубежьем, то есть опять же с Китаем и Россией. Рейсы на Китай были отменены ранее.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назад было прекращено движение по маршруту Пхеньян - Владивосток, где дважды в неделю летал борт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авиакомпании Air Koryo. То есть связь КНДР с внешним миром прервана и по воздуху.

По словам источников, меры эти временные, но о сроках их действия ничего не говорится. Власти КНДР отметили, что прекращение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и авиационного сообщения продлится "до особого распоряжения".

Открытым остается вопрос в отношении движения грузов из Китая и России в КНДР, а также поставок по морю. Высока вероятность, что и здесь Пхеньян пошел на прекращение контактов.

Официальный Пхеньян не делает никакой тайны из произошедшего, поясняя, что страна изолирована в связи с желанием не допустить проникновения нового вида коронавируса в КНДР. Вспышка "уханьской пневмони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в соседнем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Китае. Отметим, что это не первый случай, когда Пхеньян идет на полную изоляцию страны при вспышке каких-то инфекций, которые получают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по планете. В частности, схожие меры были введены в 2013 году во врем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ируса Эболы.

Олег Кирьянов(РГ)

Группа BTS готовится к беспрецедентному мировому турне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упер группа BTS объявила о своем глобальном концертном турне «Карта души», которое начнется в апреле в Сеуле.

На первой фазе турне группе предстоит дать 37 концертов в 17 городах мира, сообщили в агентстве группы Big Hit Entertainment.

Концертное турн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ыступления в США, Канаде, Япони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Германии и Испании.

Американский этап турне откроется 25 апреля в Санта-Кларе, а затем продолжится в Лос-Анджелесе, Далласе, Орландо, Атланте, Вашингтоне и Чикаго.

После выступлений в японском городе Фукуоке группа перелетит в Канаду перед тем, как начать европейский этап турне в Лондоне, Берлине и Барселоне.

«BTS начинает свое новое мировое турне «Карта души» после успешной концертной серии «Полюби себ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 сказали в агентстве, добавив, что вскоре появится больше информации с возможным увеличением числа городов.

В мировом турне «Полюби себя», которое началось в августе 2018 года и продолжалось до октя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группа выступила с 62 концертами в 23 городах и привлекла свыше 2 миллионов зрителей.

График нынешнего концертного турне был объявлен накануне выпуска нового альбома группы «Карта души», намеченного на 21 февраля.

BTS были в Москве один единственный раз в 2014 году.

(ИА РУСКОР)

Посол Республики принят в МИД России

5 февраля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В.Моргулов принял Чрезвычайного и Полномочного Пос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Ли Сок Пэ по его просьбе.

Состоялся обмен мнениями по актуальным вопросам двусторонней повестки дня, включая график политических контактов,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оссийского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едомства.

(ИА РУСКОР)

За десять лет количество пассажиров в аэропортах РК выросло вдво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услугами 15-т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аэропортов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157 млн 673 тыс. человек. Это более, чем в два раз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09 годом. Такие данные представлены портало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казатель сохранял постоянный рост 11 лет подряд. Наибольшая доля пришлась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эропорт Инчхон – 71 млн 160 тыс. человек.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Международный аэропорт Чечжудо – 31 млн 310 тыс. человек. Далее следуют аэропорты Кимпхо и Кимхэ.

(KBS World)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0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95 руб. 15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усиливают меры по недопущению коронавируса

Ситуация, связанная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заболевания в мире, обсуждалась на рабочем совещани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оследние дни беспокойство вызывает информация о стремительном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в Китае и других странах мира коронавируса. Первые случаи заболевания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уже и в России. Мы должны принять все меры, чтобы не допустить проникновения инфекции на территори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бязан быть на связи 24 часа,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лава области призвал все профильные ведомства объединить усилия по недопущению на острова коронавируса. Регулярно рассказывать жителям о том, как уберечь себя от инфекции. Министерству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оручено привести в повышенную готовность медицинские службы, усилить санитарно-карантинный контроль в салонах самолетов, аэропортах и гостиницах.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ено туристам, которые недавно вернулись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с отдыха из КНР. В целях профилактики им рекомендовано быть дома, поэтому работающих граждан отправили на больничный. За состоянием здоровья каждого ведется профилактическое наблюдение.

Министерству образования рекомендовано воздержаться от масс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особенно связанных с выездом в Китай и другие страны, где регистрируются случаи заболевани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чала работать обновленная газовая котельная

Коммунальный объект обеспечит теплом и горячей водой пять корпус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клинической больницы. В дальнейших планах – использовать его мощности для жилого фонда.

Тепло и горячую воду от современной котельной получают перинатальный центр, акушерское отделение, кожно-венерологический и туберкулезные диспансеры.

Объект полностью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 В здании смонтировано четыре котла от ведущих мировы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тепловой мощностью по 3700 кВт каждый. Установлена система ступенчатой водоподготовки непрерывного действия. «Ум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анализирует воду по трем показателям: содержание кислорода, жесткость и кислотность.

Теплоснабжение соци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 это всегда особа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все должно быть продумано до мелочей. На случай возникновения нештатной ситуации и отсутствия газа, оборудование может работать на резервном дизельном топливе. Это значит, что подача тепла не будет прекращаться ни на минуту, – рассказал мастер котельной Андрей Кужина.

Работа котельной учитывает даже погодные условия. Колебания температуры на улице отслеживают специальные датчики. В случае похолодания автоматически повышается температура теплоносителя, а при теплой погоде – понижается.

В ближайших планах – использовать котельную на полную мощность. Резерв энергии может быть распределен среди жилого фонда, расположенного по Больничной, Авиационной и близлежащим улицам.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ся охватить оставшуюся часть больничного комплекса.

Напомним, газификацию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овместно осуществляют сахали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глобальная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компания «Газпром». Стоит задача – к 2025 году полностью обеспечить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голубым топливом»: на 80 процентов – с помощью трубопроводного газа, на 20 – за счет сжиженного и компримированного. Также идет работа по расширению использования газомоторного топлива. В этом год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оется вторая заправокная станция «Газпрома», где смогут ежедневно заправлять экологичным топливом до 400 автомобилей.

Птицефабрика «Островная» первой в области начала реализацию нацпроекта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ь труда и поддержка занятости»

В этом предприятии помогут специалисты Федерального центра компетенций. Эксперты оптимизируют наиболее эффективные этапы производства, увеличив тем самым прибыль компании без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финансовых вложений.

Мы не ограничиваемся лишь поддержкой в виде субсидий и сегодня внедряем новый нефинансовый способ поддержки за счет изыскания внутренних резервов на каждом предприятии, – отметил министр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Алексей Успенский. – Соглашения об участии в этом проекте подписали уже четыре компании. Птицефабрика «Островная» была первой.

Сейчас на предприятии сформирована рабочая группа. В нее вошли наиболее опытные и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сотрудники.

Сегодня это снижение себестоимости, рост производительности труда, увеличение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сотрудников, а завтра – это престиж работы на предприятии, – отметил в своем обращении к коллективу его руководи-

тель,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омпании Сергей Добреля.

Подобные практики внедрены уже на многих предприятиях в различны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Специалисты центра привезли на Сахалин лучшие из них.

– Моя задача – не только дать новые знания, но и научить работать с этими методиками, – рассказывает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оекта Федерального центра компетенций Алексей Иванов.

На «Островной» эксперты проработают шесть месяцев. В первые три – они проведут диагностику пилотного потока, а затем – внедрят выработанные методики на весь цикл производства.

Около 21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потратят на оснащение детских школ искусств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 2020 году

Средства из областного бюджета пойдут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нов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трех учреждений. Оснащение детских школ искусств (ДШИ) музыкальными инструментами, оборудованием и учебными материалами ведется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я сферы культур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ема качества и доступност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детей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была затронута Президентом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в ежегодном Послании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Культура» выделяется более 8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на оборудование и музыкальные инструменты для детских школ искусств. Но проблема гораздо шире. Сейчас более тысячи помещений, где размещены такие учебные заведения, обветшали или просто непригодны для занятий. Прош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омочь регионам привести их в порядок. И регионы прошу не забывать, что это ваша обязанность, – сказа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Развитие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детей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 один из приоритетов деятельност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области ведется планомерная работа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 2019 году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Культура» были оснащены 8 детских школ искусств. На эти цели было потрачено более 29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из них 12 миллионов – средства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Приобрели более 180 музыкаль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1082 единицы оборудования и более 1500 учебных материалов, как зарубеж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так и отечественного. В этом году на оснащение ДШИ предусмотрено около 21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в 2021 – более 33 миллионов, из них 14 миллионов – федеральные средства.

Кроме того, сейчас мы готовим предложения по капитальному ремонту в региональных ДШИ на ближайшие 3 года. Отрадно, что федеральные структуры поддерживают оснащение школ искусств и у нас очень большой процент софинансирования,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нна Лаврик.

Министр напомнила, что в области вед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ых зданий для занятия детей творчеством. Уже заложен фундамент ДШИ в планировочном районе Лугово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Е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ют завершить в текущем году. В Аниве возведение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начнется в этом году. Сдать здание планируют в 2021 году.

Выделяются средства и на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учреждений. В 2019 году его провели в зданиях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Корсакова и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Гармония».

По проекту «Цифровая культура»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в ДШИ Корсакова и Долинска в 2021-2022 гг. будут созданы виртуальные концертные залы.

Результаты реализац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я сферы культур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метны уже сейчас. В 2019 году ДШИ посещало 7 410 человек, что на 1,6 процента больше чем в 2018 году.

Горнолыжники из 10 стран поучаствуют в паралимпийском этапе Кубка мира на Сахалине

Заявлены спортсмены из России, США, Норвегии, Франции, Австрии, Польши, Италии, Швейцарии, Финляндии, Словакии. Такая информация прозвучала на совещании в област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Все спортсмены – участники, призеры и победители Паралимпийских игр разных лет. Всего в престиж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на Сахалине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более 40 горнолыжников, 80 судей, 100 волонтеров.

Состязания пройдут на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м комплексе «Горный воздух» с 9 по 21 февраля. В программе – пять дисциплин: слалом, слалом-гигант, супергигант, параллельный слалом и скоростной спуск.

У нас есть опыт проведения масштабных спортивных состязаний. Но участников этапа Кубка мира по паралимпийскому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Сахалин принимает впервые. Необходимо проследить, чтобы все прошло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Начиная от подготовки трасс и удобного размещения, заканчивая вкусными обедами и зрелищными концертам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мы должны уделить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медицинскому обеспечению,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сновными трассами станут «Спортивная» и «Спортивный рукав», резервной – «Армейка». Эксперт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аралимпи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высоко оценили готовность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к этапу Кубка мира. Дополнительно независимую оценку провел технический делегат международной ассоциации инструкторов Санди Муровец (Словения).

Как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уренков, в судейскую бригаду вошли 80 специалистов, из них 70 – приезжих. Главным судьей на этапе Кубка мира станет Светлана Ермакова из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аторам окажут помощь 100 волонтеров по 11 направлениям. Иностранцев будут сопровождать волонтеры-атташе, которые свободно владеют английским. Группа добровольцев будет встречать сборные команды в аэропорту Шереметьево.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соревнований забронировали 20 автобусов и гостиничный фонд, предусмотрено трехразовое питание. На «Горном воздухе» установят передвижной медицинский пункт, будут дежурить кареты скорой помощи. Безопасность будут обеспечивать 50 сотрудников полиции, а также работники частных охра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спасатели. Онлайн-трансляции соревнований можно будет увидеть в разных странах мира.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этапа Кубка мира по горнолыжному спорту состоится 9 февраля, в 18 часов, с восточной стороны входной группы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Здесь же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ежедневные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ждения.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едложил Таиланду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крупн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ах Сахалина

Губернатор области провел рабочую встречу с бизнес-делегацией иностран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В её состав вошли Чрезвычайный и Полномочный Посол Королевства Таиланд в РФ Танатип Упатисинг, руководители компании «И-Эй-Джи Холдингс». Стороны обсудили возможности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ы по улучшению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островов, строительству крупных логистических объектов, созданию производств и развитию туризма.

В частност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ассказал бизнесменам о перспективах создания на Сахалине точки перегрузки сжиженного газа. Терминал необходим для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топлива, которое идет морским путем из Ямала в страны Азии.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СПГ доставляют судами ледового класса, однако дальнейшее перемещение топлива этим транспортом экономически нецелесообразно. Для доставки конечным потребителям сжиженный газ необходимо перегрузить на более экономичные в содержании и обслуживании суда. Терминал, с помощью которого это можно было бы делать, предлагается создать на Сахалине.

В крупном инвестиционном проекте заинтересована тайская сторона. Бизнесмены хотели бы купить у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жиженный природный газ. Сахалин готов предложить зарубежным партнерам эту продукцию.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едложил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вложить деньги в реализацию инициативы. В свою очередь,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заключит с тайской стороной контракт на поставку определенного объема топлива еще до начала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Также мы приглашаем бизнес Таиланда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развитии аэропорт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и горнолыжного курорта «Горный воздух»,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Мы открыты к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по самым раз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и можем предложить инвесторам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Ваш визит является первым официальным визито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Таиланда на Сахалин – для нас это имеет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Пайрож Пьемпонгсант – ведущи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Королевства – отметил, что развитие аэропорта имеет ключевое значение в увеличении островного турпотока. Он вспомнил свой опыт основан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ы восточного побережья Таиланда (ESB).

Когда-то Пхукет был обычной деревней. Сейчас это процветающее место, куда приезжают туристы со всего мира. И это во многом благодар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е. Готовы помочь вашему региону в развитии таких крупных объектов, как аэропорт, – подчеркнул Пайрож Пьемпонгсант. – Мы бы хотели получать финансовую отдачу от реализации туристических и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х проектов на Сахалине.

Отметим, сегодн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и Таиланд развивают взаимную торговлю. Из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азиатскую страну поставляется бурый уголь, рыба и морепродукты. Из Королевства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поступают различные готовые изделия из пластмассы, каучука и металлов.

За 11 месяцев 2019 года объем двусторонней торговли увеличилс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2018-го в 1,1 раза и составил 38,6 млн. долларов СШ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교육원은 한국어 교육을 발전시키는 사업이 우선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과의 인터뷰

(2면의 계속)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사업들 중 가장 잘된 사업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죠. 이곳 수강생들의 반응 또한 아주 좋습니다. 큰 틀에서 말하자면 원어민 수업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은데, 원어민 수업을 들을 기회를 주니 수강생들 입장에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또 지난 여름에 한국의 경인여자대학교의 학생들이 봉사대를 결성해서 사할린에 와서 봉사활동을 2주일간 펼쳤습니다. 이 봉사단은 한국어도 일부 가르치고,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관광지, 한국의 역사, K-POP등을 포함해서 2주간 짧지만 집중해서 하루에 네 시간씩 가르치며 많은 것을 가르쳐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한국에서 해외봉사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은 계속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육원을 통해 진행되는 장학사업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 저희 교육원이 직접 장학금을 수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선발을 해서 추천을 하는 장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재외동포재단에서 러시아, CIS지역 이런 곳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사업과 재외동포재단의 장학 유학 사업도 있습니다. 우수 사할린 동포 학생들이 재외동포재단에서 교육 받고 한국 최고 대학들에서 학사, 석사 과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큰 장학프로그램 중 하나가 동서대학교 인재양성 프로그램입니다. 동서대와 사할린주 정부(교육부), 사할린한국교육원 - 3측의 맺은 협력 아래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할린주 정부의 추천서를 받고 지원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교육원에

서 추천한 사람을 1차 선발해서 한국에 지원서류를 보내면 동서대에서 최종 선발을 합니다. 사실 최근 지원 기준에 많이 엄격해서 지원자가 많지 않아요. 입학하려면 무조건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자격증 있어야 합니다. 올해에는 1명이 가게 되었습니다. 동서대에서는 1학년부터 공부하는 경우 4년간 전액 장학금과 기숙사를 제공합니다. 이 장학프로그램에는 동포, 러시아인 상관 없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원에서 우수학생들을 선발해서 세계한민족 학생 여름 캠프 등에 추천하고 또한 동북아청소년협의회(구미)와 함께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역사를 배우도록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사할린-한국 - 격년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작년에는 그쪽에서 사할린 현지 관련 사업을 지원했고 올해는 한국에서 한국어 연수 및 한민족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할 듯 합니다.

- 사할린에서 3년간 근무 하셨는데 원장님께서 사할린은 어떤 곳이고 어떤 의미인가요?

- 처음 올 때는 사할린을 잘 몰랐죠, 어렵듯이 알고 있었죠. 여기서 3년을 지내면서 특히 사할린 한인의 역사와 한인들이 살아오신 과정을 직접 듣고 보고 하다보니 첫 번째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사랑해야 하고 더 아껴야 하는 곳이 사할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막연하게 사할린을 아는 한국인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돌아가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사할린 동포분들이 어렵게 사시는 중에 지금은 러시아 사할린 사회에서 자리잡고 잘 살고 계시지만, 우리 민족으로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오신 것들을 좀 잘

알리려고 합니다.힘 닿는 데까지 이쪽 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할린은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곳으로, 꼭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면 사할린 한민족에 대해서 잘 알고, 우리 동포로서 함께 힘을 합쳐서 가야될 곳이 사할린이라고 생각합니다.

- 원장님께서 저희 신문에 첫 인터뷰를 하실 때가 혼으로 <항상 웃자>라고 하셨는데 사할린에 계시는 동안 웃으셨던 일이 많으셨는지요? 그리고 무엇을 가장 즐기셨는지요?

- 가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혼자 살다보니 같이 웃는 사람이 없었지만 저는 여기서 인상쓰거나 화내거나 싸우고 할 일은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많이 한 것은 가가린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말이나 휴일에 공원뿐 아니라 그냥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내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시던 분들도 가보지 못한 시내의 장소들을 많이 가봤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겨울에는 얼음낚시를 가서 코류쉬카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코류쉬카를 몇 마리 잡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눈 위의 시원한 곳에서 낚시를 하면 아주 웃는 웃음이 아니라 만족한 기쁨의 웃음이 나오는, 그런 낚시를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사할린에 사시는 분들이나 한국에서 사할린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꼭 겨울낚시를 체험해보야 사할린에 사는 제대로 된 맛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독자들에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저는 언젠가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번 주 신문이 나와야 될 날이 31일이었는데, 배달이 안 되었어요. 그날 종설이 심해서 신문을 받지 못했어요. 저는 금요일 아침이되면 제일 먼저 새고려신문을 기다립니다. 금요일의 첫 일과는 새고려신문을 살살이 읽는 것입니다. 러시아 면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한국어 면과 비교도 하며 이해해 나가며 정독합니다. 내용 면에서나, 꾸민 부분들에서 알차게 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이라고 3년간 생각하며 신문을 애독하였고 한 호도 빼놓지 않고 다 묶어두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가까이에서 어떻게 보면 쉽게 접한다면 접하는 신문이다 보니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아주 소중한 신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할린 한민족의 생생한 산 역사로 영상이나 다른 매체는 지나가면 찾아보기가 힘든 면이 있는데, 이렇게 활자로 남아 생생하게 우리의 하루하루 또 한 순간 한 순간을 기록한 신문이기 때문에 이 신문을 사랑해 주시고,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새고려신문사가 지금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시대의 변화에 맞게 뉴스 전달 매체로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새고려신문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읽어주시고 전파해주시고, 기회가 될 때는 물질적으로도 후원을 해주셔서 사할린뿐 아니라 러시아도 그런 신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이 애독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 따뜻한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응원을 기대하며 원장님께서도 좋은 일들을 많이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말로 깨달다]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우리말을 가르치다보면 호칭과 지칭이 참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를 때도 어렵지만 자신을 가리킬 때도 어렵습니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는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에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거나 지위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경희대학교 교수 조현용입니다.'라고 자신을 가리키고 소개합니다. 저를 부를 때는 '조 교수님'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딱딱하죠. 그렇지만 굳이 자신의 지위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친한 사람끼리 부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친척이나 친구, 가족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친구, 친척 간에도 상대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보다 다른 호칭이나 지칭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이름 부르는 것을 좀 어색해 하는 문화입니다.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전통적으로도 우리는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부모님은 결혼한 자식을 '누구 아버지, 누구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부부끼리도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고 부릅니다. 저도 아내를 해민 엄마, 민재 엄마라고 부릅니다. 친한 친구끼리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넣어서 부를 수 있는 사이는 친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서로의 가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아닐까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아이가 있는지, 이름이 뭔지, 어떤 아이인지 알아야 부를 수 있는 호칭이니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는 경우라면 가장 쉽게 불리는 호칭이 누구 엄마, 누구 아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런 호칭이 나 자신을 잃게 만드는 호칭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고 늘 누구의 엄마로 살아야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잃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장면에서 쓰이느냐에 따라 이런 평가는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빠, 엄마로서의 삶이 중요한 순간에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라는 말만큼 벅찬 표현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고마운 표현입니다.

학부모 모임에 가면 당연히 자기의 이름보다 누구의 엄마아빠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가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가끔 지위를 드러내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웬지 학부모 모임에는 맞지 않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임이 아니고 아이 친구의 부모와 사적으로 만나는 경우도 굳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위나 직업이 중요해지는 순간, 그 만남은 목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냥 누구의 엄마아빠로 만나면서 서로 따뜻한 정을 나누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저는 가까운 사람이 서로를 누구의 엄마아빠라고 부르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부를까요? 모든 언어에서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한국어의 독특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상대의 이름을 부르거나 직업, 지위를 호칭, 지칭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누구의 엄마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상대에게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이름이나 지위가 아니라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여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부부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 부부를 더욱 특별하게 해주는 것은 아이입니다. 부부는 둘만으로도 더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만, 아이가 생기고 나면 우리는 그 아이의 부모가 되므로 더 특별해집니다. 그래서 부부끼리도 서로를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을 부르고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아이가 둘 이상의 경우라면 아이들의 이름을 골고루 넣어서 이름을 불러주면 좋겠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서운해 하는 경우도 있으니 말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신고접수 안내

1.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 2019.11.17 ~ 2020.2.15
2. 대상자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3. 신고 및 신청방법
 - 인터넷 이용(ova.nec.go.kr)
 - 공관방문(283B, Lenin St. Yuzhno-Sakhalinsk, 693008)
 - 우편/전자우편 이용(ovyuzhnosakhalinsk@mofa.go.kr)
4.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 기간 : 2020.4.1 ~ 2020.4.4. (08:00-17:00)
5. 투표 장소 : 주 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 (283B, Lenin St. Yuzhno-Sakhalinsk)

6. 투표 시 준비물 : 신분증명서(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 * 영주귀국 1세(대한민국 국적 보유) 중 재외선거 기간(4.1.-4.4.)에 사할린 체류예정인 분도 **2.15까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시면** 사할린 출장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출장소(+7-4242-46-24-3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저모

(2면의 계속)

홈스크 출신 울리야나 미, 고향 섬을 촬영한 '동결'이라는 제목의 영상 공개

1월 31일 한파 속에 홈스크 출신의 울리야나 미가 <얼어붙은 마음>이란 제목으로 멋진 동영상 올렸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영상을 공개한 후 9시간 만에 많은 댓글과 약 3천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울리야나 미가 출연하고 연출한 동영상이 공식 홈페이지에 올랐다. 얼어붙은 마음과 해빙에 대한 노래는 차가운 색조로 촬영한 동영상을 동반했다. 장면에서는 전체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는 사할린의 버려진 건물과 녹슬어 침몰한 배들이 등장한다.

"이런 추위 속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너는 모른다. 한없는 눈발이 커튼처럼 빛을 가리고 얼음 위에 배들이 퐁퐁 얼어붙는다. 그러나 겨울은 끝나고 다가오는 봄 앞에 새로운 해안가를 지나는 나그네를 멈추게 한다. 마음은 이들의 태양으로 따뜻해진다." 라고 울리야나 미는 영상에 자막을 넣었다. 5분의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많은 소품들과 대규모 예술인들 팀과 때로는 직접 걸어서 다수 답사한 섬의 위치 선정이 필요했다.

Хомчанка Ульяна Ми выпустила «ледяной» клип, снятый на родном острове

В морозный день 31 января певица Ульяна Ми ро-

дом из Холмска выпустила красивый клип с подходящим названием «Замерзшая душа». За 9 часов после премьеры на своем YouTube-канале девушка собрала множество комментариев и около 3 тысяч просмотров.

Клип с участием и одновременно спродюсированный Ульяной Ми появился на ее официальной странице. Песню о замерзших душах и оттепели в них сопровождает красивый клип, снятый в холодных тонах. На кадрах появляются заброшенные здания Сахалина, ржавые потонувшие корабли, которые рассказывают целую историю.

— В этом холоде ты не знаешь, куда идти. Снег сплошной завесой закрывает свет, и корабли застынут во льдах. Но зима заканчивается и перед взором ищущего встают новые берега. Душа согреется их солнцем, — подписала клип певица.

Чтобы снять пятиминутный ролик, понадобилось много реквизита из прошлого, огромная команда творческих людей и масса исследованных локаций острова, до которых иногда приходилось идти пешком.

주 일반과학 도서관, 인터넷 보안 주간 홍보

2월 11일-18일까지 주 일반과학도서관은 인터넷상 기본 정보 보안을 목적으로 사할린 주민들을 위한 실습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은 사할린주 일반과학도서관 디지털 문화 및 정보센터 직원들이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한다.

- 2월 11일 14시 - 15시 -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기
- 2월 12일 14시 - 15시 - 악성 프로그램 잡기
- 2월 13일 14시 - 15시 - 제어 체계와, 인증 방식
- 2월 17일 14시 - 15시 - 암호 작성 및 보안 정책

- 2월 18일 14시 - 15시 - 인터넷상 아동 보호
방문자들은 인터넷상 보안을 주제로 한 흥미롭고 유용한 정보를 '인터넷 보안'이라는 전시회에서 제공하는 책과 잡지로 알 수 있게 된다고 도서관 측이 전했다.
문의 전화는 +7(4242)45-25-43 로.

Неделю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Интернете объявляет областная научная библиотека

Практические занятия для жителей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посвященные основам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пройдут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с 11 по 18 февраля.

Занятия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сотрудники Центра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и цифровой культуры СахОУНБ по следующему графику:

- 11 февраля с 14.00 до 15.00 — Мошенничество в цифровой среде.
- 12 февраля с 14.00 до 15.00 — Вредоносное программ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 13 февраля с 14.00 до 15.00 — Механизмы контроля, методы аутентификации.
- 17 февраля с 14.00 до 15.00 — Криптография и политика безопасности.
- 18 февраля с 14.00 до 15.00 — Безопасность детей в интернете.

Интересную и полезную информацию, посвященную теме безопасности в Интернете, пришедшие смогут узнать из книг и журналов, представленных на выставке "Безопасный Интернет".

Справка по телефону +7 (4242) 45-25-43, сообщает библиотека. (сас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에서)

EDA.SAKH.COM

СЕРВИС ЗАКАЗА ЕДЫ

Наш сервис объединяет **БОЛЕЕ 50 ЗАВЕДЕНИЙ**

Мы передали более **БОЛЕЕ 100 ЗАКАЗОВ**

Нашим сервисом пользуются **БОЛЕЕ 25 0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Вам помогут сделать выбор **БОЛЕЕ 5 000 ОТЗЫВОВ**

ПРИСОЕДИНЯЙТЕСЬ!

ПОЧЕМУ С НАМИ УДОБНО?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Заказы запоминаются, их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ПОПРОБУЙТЕ

НА САЙТЕ eda.sakh.com

Десктопная версия

Мобильная версия

ИЩИТЕ ПРИЛОЖЕНИЕ eda.sakh.com

ЗАГРУЗИТЕ НА
Google play

Загрузите в
App Store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Рекламы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2-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	---	---	---	---	--